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혁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 02-2014-6265 ilbero@nicerating.com

2020.07.15.

SUMMARY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에 대한 국내외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20년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폭락했던 글로벌 주가지수는 이에 힘입어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환경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기업은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 기업은 주가 회복이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업은 후자에 해당한다.

초저금리 시대 해외 금융회사의 대응

- 0%대 기준금리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기간 제로금리 사업환경에서 영업을 해온 해외 금융회사의 대응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국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SC, 한국씨티)과 미국 4대 상업은행(JPMorgan Chase Bank, Bank of America, Wells Fargo Bank, Citibank)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미국 4대 상업은행이 월등히 우수하다.
- 미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환경에서도 더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사업구조상 비이자이익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초저금리 시대에도 NIM 3%대, ROA 1%대의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 2020년 기준금리의 제로금리 회귀로 수익성은 저하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는 여전히 한국의 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

- 저금리 기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과 담보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업구조의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최근 수년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부문의 사업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었고, 은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이자이익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와 금융투자부문의 활성화는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금융업권이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이다. 금융당국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사업구조를 변경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Non-face-to-face) 경제활동의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회사에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핀테크(Fintech)와 테크핀(Techfin)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있어 중대한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만기연장 조치 장기화 시 정보왜곡 확대 가능성

-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3월 금융회사에게 기업과 가계의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간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시적 조치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정보왜곡의 문제가 발생한다.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Evergreen Loan(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여신이나 그 실질은 부실여신이다. 이러한 조치가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 한계차주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대한대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신용카드업계의 공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율)은 9월까지 9~10%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동 기간 중 연체채권으로부터 출발한 대한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연체채권에 더하여 산출한 대한대출전 연체율은 2002년말 11.6%에서 2003년 9월말 32.1%로 치솟았다. 결국 2003년 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누적되었던 버블(Bubble)이 폭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신용카드사 대한대출 관련 연체율 이슈를 통해 생각해봐야 할 점은 금융회사의 재무지표가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카드사태는 2003~2004년간 전업 신용카드사 기준 총 9.0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가계대출의 대표적 실패사례다. 금융당국에서 대한대출이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좀더 빠르게 인지하고 공식 연체율에 반영했다면 카드사태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지난 3월 금융업권이 6개월간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대출채권은 9월에 그 시한이 종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금융회사 자산건전성에 대한 정보왜곡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정책적 오판을 하게 되고, 신용평가사는 적정 신용등급 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 정보왜곡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코로나 이후 금융업에 대한 국내외 전망.....	4
II. 초저금리 시대 해외 금융회사의 대응.....	5
III.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	8
IV.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8
V. 만기연장 조치 장기화 시 정보왜곡 확대 가능성.....	9
VI. 결국 답을 찾을 것이다	11

I. 코로나 이후 금융업에 대한 국내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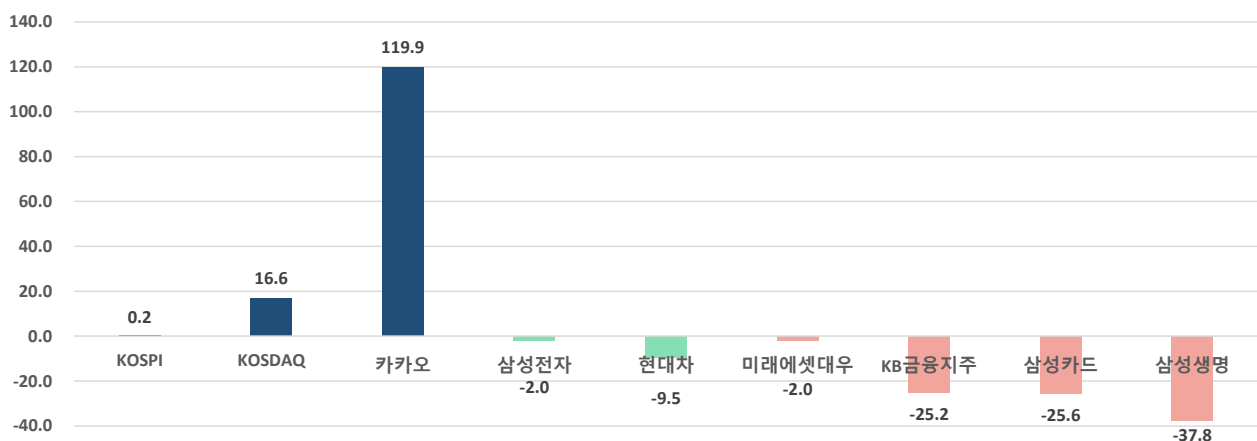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종식시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2020년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폭락했던 글로벌 주가지수는 이에 힘입어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환경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기업은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 기업은 주가 회복이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업은 후자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후 주가변동률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15일 종가 기준 KOSPI는 0.2%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ICT와 바이오 업종 기업이 많은 KOSDAQ은 16.6% 상승하였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전자)가 2.0%, 현대차(자동차)가 9.5% 하락한 반면 카카오(ICT)는 119.9%나 상승하였다. 금융업종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주가가 대부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주가변동률은 KB금융지주(은행) -25.2%, 삼성카드(신용카드) -25.6%, 삼성생명(보험) -37.8% 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증권)가 -2.0%로 그나마 낙폭을 많이 줄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주가변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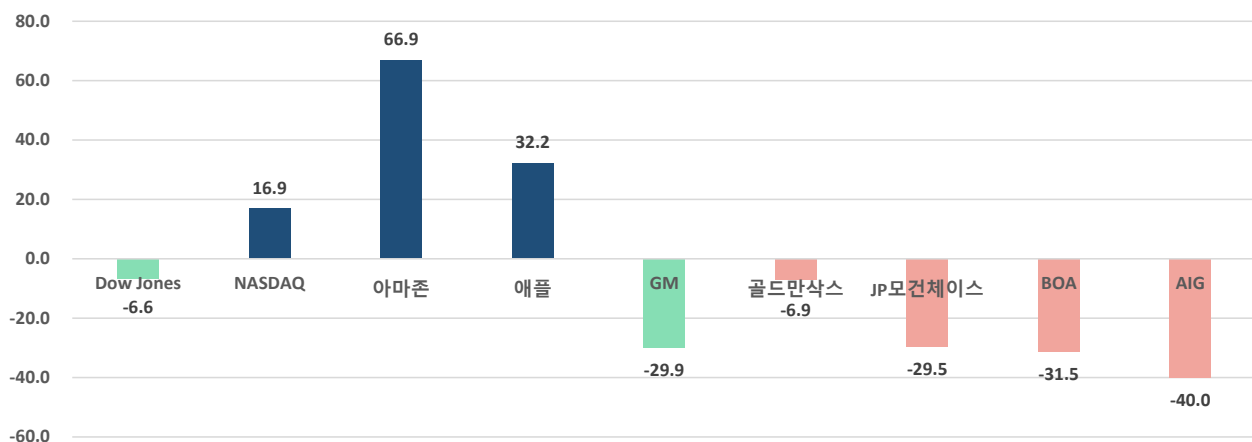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주가변동률은 2019년말 대비 2020년 7월 15일 종가 기준)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해외도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코로나19 이후 주가변동률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14일 종가 기준 Dow Jones는 6.6% 하락한 반면 ICT 업종이 많은 NASDAQ은 16.9% 상승하였다. 회사별로는 General Motors(자동차)가 29.9% 하락했으나 Amazon(온라인유통)은 66.9%, Apple(ICT)은 32.2% 상승하였다. 금융업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주가가 대부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주가변동률은 JPMorgan Chase(은행) -29.5%, Bank of America(은행) -31.5%, American International Group(보험) -40.0% 수준이다. Goldman Sachs(투자은행)가 -6.9%로 그나마 낙폭을 많이 줄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주가변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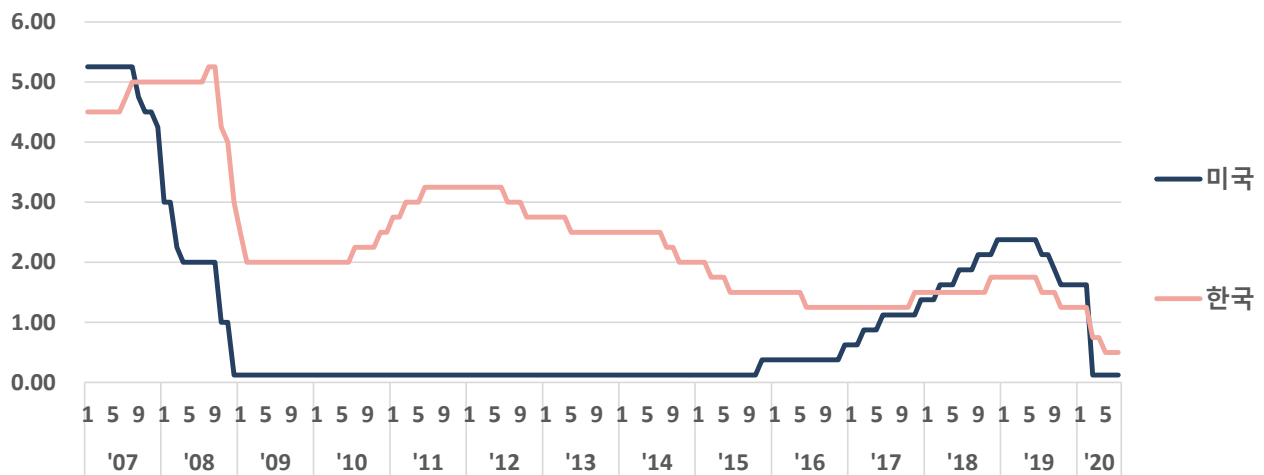
자료 : Dow Jones Global Indices, NASDAQ Stock Market (주가변동률은 2019년말 대비 2020년 7월 14일 종가 기준)

II. 초저금리 시대 해외 금융회사의 대응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은 저금리 심화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업은 금리 하락이 상승보다 불리하다. 은행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는 이미 금리가 0%에 가까운 요구불예금 때문에 하락 폭이 제한적인 반면 대출금리는 시간을 두고 기준금리 하락분을 대부분 따라가게 된다. 그 결과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면서 이자이익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증권업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낮아진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이 은행으로부터 증권으로 이동하고, 보유채권 평가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러나 각국의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선에 근접해졌거나 도달한 현 상황에서는 Carry 이익(채권 보유에 따른 이익)이 낮아지는 가운데 추가 금리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채권부문의 이익창출력이 위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실물경기의 장기침체는 투자위험을 높여 수익성의 변동성이 커진다. 따라서 증권업도 장기적으로는 금리하락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한국, 미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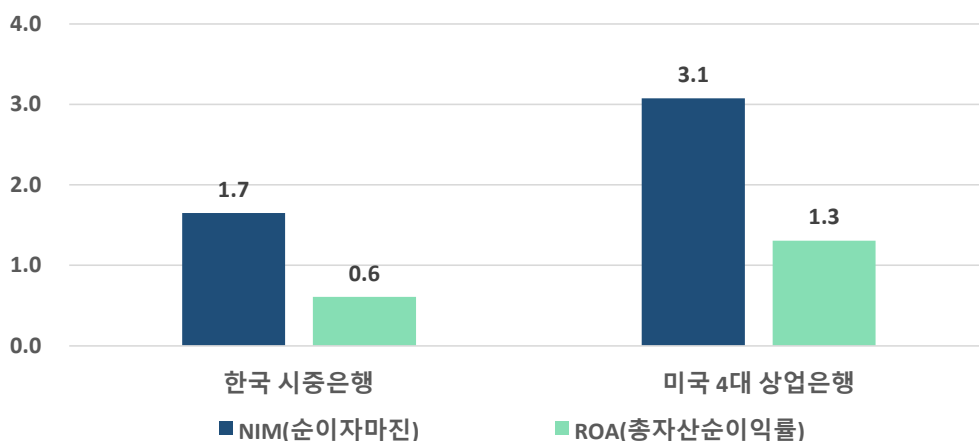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FRB

0%대 기준금리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기간 제로금리 사업환경에서 영업을 해온 해외 금융회사의 대응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국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SC, 한국씨티)과 미국 4대 상업은행(JPMorgan Chase Bank, Bank of America, Wells Fargo Bank, Citibank)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미국 4대 상업은행이 월등히 우수하다. 순이자마진(NIM)은 미국 4대 상업은행 3.1%, 한국 시중은행 1.7%, 총자산순이익률(ROA)은 미국 4대 상업은행 1.3%, 한국 시중은행 0.6%로 모두 2배 내외의 격차가 나타난다. 즉,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미국의 은행은 한국의 은행보다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미국 은행 2019년 수익성 비교

단위: %



자료 : 각 은행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자료 NICE신용평가 정리

주 : 한국 시중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SC, 한국씨티, 미국 4대 상업은행은 JPMorgan Chase Bank, Bank of America, Wells Fargo Bank, Citi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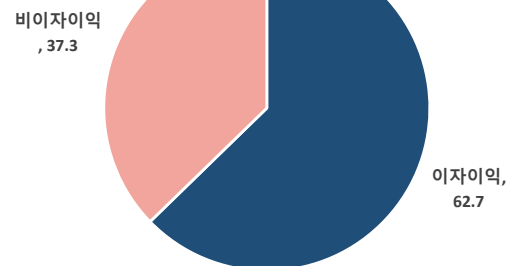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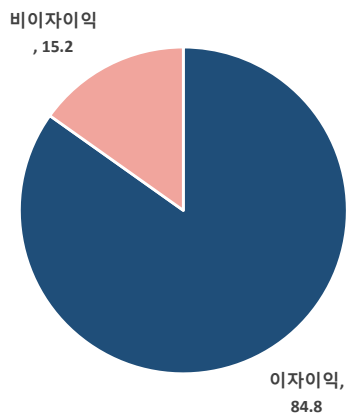
미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환경에서도 더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사업구조상 비이자이익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익 구성비 측면에서 한국 시중은행은 2019년 기준 이자이익 84.8%, 비이자이익 15.2%로 이자이익의 비중이 절대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 4대 상업은행은 이자이익 62.7%, 비이자이익 37.3%로 사업구조가 좀더 분산되어 있다. 대출채권 구성비 측면에서 한국 시중은행은 2019년말 기준 담보 및 보증 72.6%, 신용 27.4%로 대출금리가 낮은 담보대출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면, 미국 4대 상업은행은 담보 및 보증 36.2%, 신용 63.8%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은행은 한국의 은행과 비교 시 사업구조가 좀더 분산되어 있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더 크다. 이를 통해 초저금리 시대에도 NIM 3%대, ROA 1%대의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 2020년 기준금리의 제로금리 회귀로 수익성은 저하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는 여전히 한국의 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시중은행 2019년 이익 구성비

단위: %

미국 4대 상업은행 2019년 이익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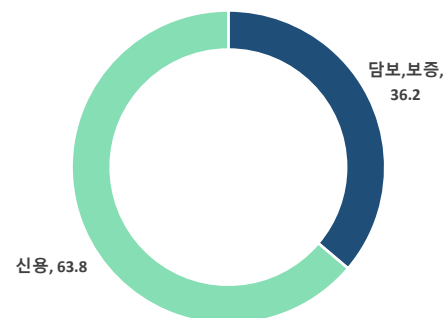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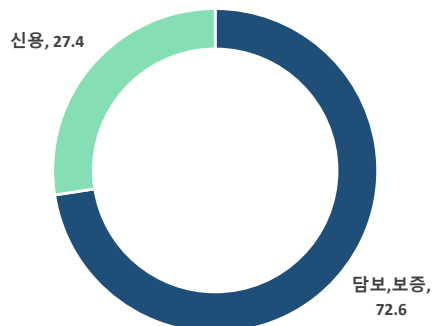


한국 시중은행 2019년말 대출채권 구성비

단위: %

미국 4대 상업은행 2019년말 대출채권 구성비

단위: %



자료 : 각 은행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자료 NICE신용평가 정리

주1 : 한국 시중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국SC, 한국씨티, 미국 4대 상업은행은 JPMorgan Chase Bank, Bank of America, Wells Fargo Bank, Citibank

주2 : 미국 4대 상업은행 담보, 보증은 부동산담보 기준(Loans secured by real estate)

III.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

국내 은행의 사업구조가 이자이익과 담보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금융당국과 국내 은행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구조의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최근 수년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부문의 사업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었고, 국내 은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이자이익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과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사모펀드 중 상당수가 투자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적기에 상환받지 못하는 부실펀드였음이 밝혀지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완화, 은행 및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불철저로 인한 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와 금융투자부문의 활성화는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금융업권이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이다. 금융당국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사업구조를 변경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매중단 등 사고발생 부실 사모펀드

단위: 억원

펀드명	규모	투자대상	주요 판매사
라임펀드	17,000	사모사채, 무역금융채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젠투파트너스펀드	13,000	국내외 채권	신한금융투자
해외금리 DLF	7,950	해외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우리은행,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DLS	5,300	독일 부동산산업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옵티머스펀드	5,000	공공기관 매출채권	NH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B 호주 부동산펀드	3,264	호주 장애인아파트	KB증권
알펜루트펀드	2,100	비상장주, 메자닌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2,000	미국 대출채권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800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	하나은행
TA 인수어드 무역금융 DLS	1,000	무역금융채권	KB증권

자료: 언론 보도자료 NICE 신용평가 정리

IV.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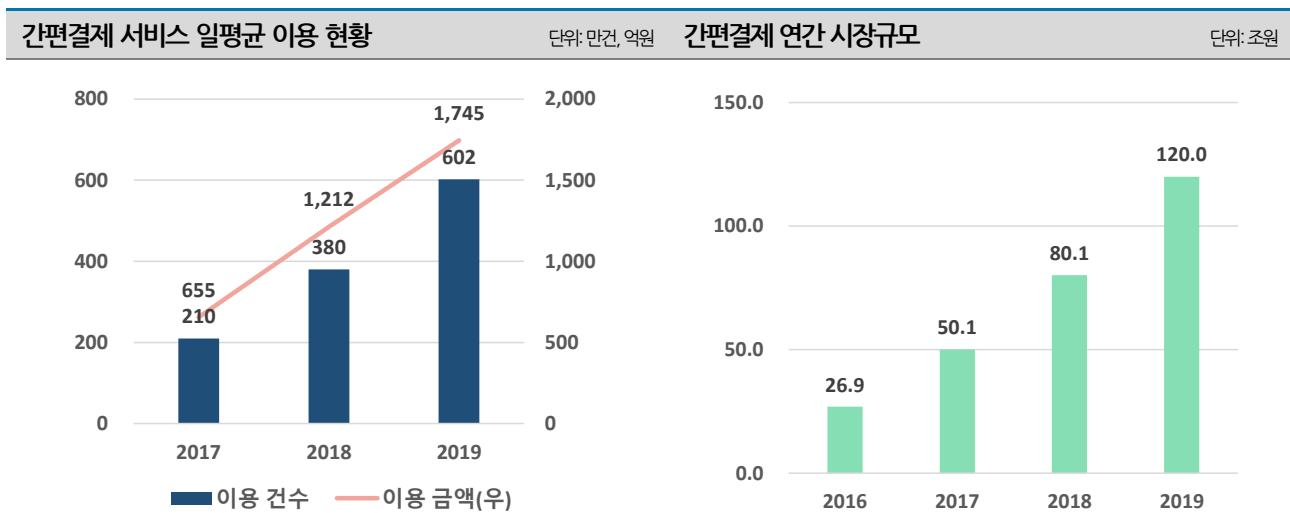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A.T.커니에 의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Mobile, Cloud, Big Data, AI, IoT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경영환경상의 변화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행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성장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Non-face-to-face) 경제활동의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회사에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년전부터 금융업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였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서비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되었다. 핀테크가 금융회사 주도의 서비스라면 최근에는 ICT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에 금융을 접목해 혁신을 가져오는 테크핀(Techfin)이 새로운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 테크핀은 핀테크에 비해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회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핀테크와 테크핀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있어 중대한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핀테크 vs 테크핀

핀테크 (Fintech)	테크핀 (Techfin)
금융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금융 혁신

자료: 언론 보도자료 NICE 신용평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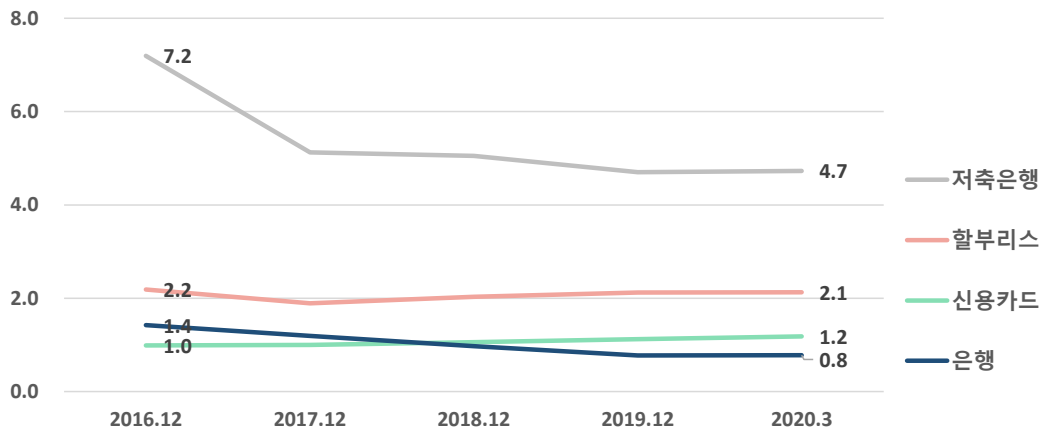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간편결제 연간 시장규모 2019년 수치는 추정치)

V. 만기연장 조치 장기화 시 정보왜곡 확대 가능성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3월 금융회사에게 기업과 가계의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간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은행, 신용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의 2020년 3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외견상 전년말과 동일한 수치가 유지되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발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9월 이후에도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한시적 조치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정보왜곡의 문제가 발생한다.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Evergreen Loan(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여신이나 그 실질은 부실여신이다. 이러한 조치가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은행, 신용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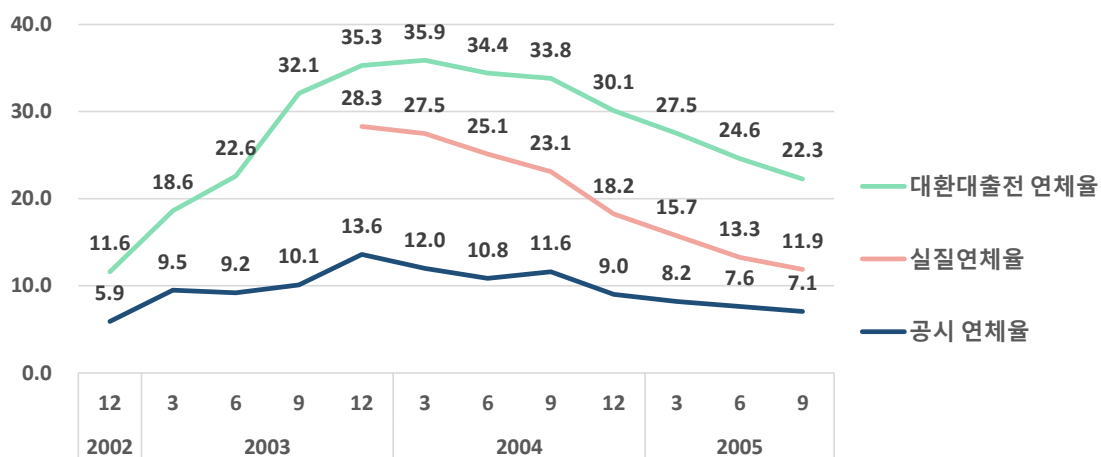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NICE신용평가 정리

한계차주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대환대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체채권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여 재대출을 시행하는 대환대출은 채권회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급상승했던 2002~2003년에는 대환대출이 외부에 공시되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면서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 신용카드업계의 공시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율)은 9월까지 9~10%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동 기간 중 연체채권으로부터 출발한 대환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연체채권에 더하여 산출한 대환대출전 연체율은 2002년말 11.6%에서 2003년 9월말 32.1%로 치솟았다. 결국 2003년 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누적되었던 버블(Bubble)이 폭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3년 11월 카드사태 전후 신용카드사 1개월 이상 연체율 추이

단위: %



자료 : 각사 업무보고서 NICE신용평가 정리 (LG, 삼성, 신한, 현대, 롯데, BC 6개사 기준)

주 : 대환대출전 연체율 = (공시 연체채권 + 대환대출)/총채권

실질연체율 = (공시 연체채권 + 대환대출 - 상환실적이 양호한 대환대출)/총채권

대환대출전 연체율은 공시 연체율이 실질적인 자산건전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분석을 위해 신용평가사가 만들어낸 조정연체율이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연체율이 아니어서 신용평가방법론에 직접 적용할 수 없었고, 이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2003년 11월 LG카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대환대출을 반영한 '실질연체율'을 새로 만들어 신용카드사가 업무보고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실질연체율은 연체채권에 대환대출을 더하되 대환대출 중 원금의 30% 이상이 상환되었고 대출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상환능력개선금액)은 차감하여 산출한 연체율이다.

신용카드사 대환대출 관련 연체율 이슈를 통해 생각해봐야 할 점은 금융회사의 재무지표가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카드사태는 2003~2004년간 전업 신용카드사 기준 총 9.0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가계대출의 대표적 실패사례다. 금융당국에서 대환대출이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좀더 빠르게 인지하고 공식 연체율에 반영했다면 카드사태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지난 3월 금융업권이 6개월간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대출채권은 9월에 그 시한이 종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금융회사 자산건전성에 대한 정보왜곡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정책적 오판을 하게 되고, 신용평가사는 적정 신용등급 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 정보왜곡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 결국 답을 찾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업환경이 과거 대비 크게 불리해졌다. 그러나 국내 금융업권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많은 위기(Crisis)를 겪을 때마다 한 단계씩 발전해 왔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 중에서

관련참고자료

[\[Special - 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정기평가결과 \(14\) - 금융업권 종합 및 하반기 신용등급 방향성, 2020.07.01](#)

[\[Special - 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정기평가결과 \(12\) - 보험사, 2020.06.30](#)

[\[Special - 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정기평가결과 \(11\) - 부동산신탁, 2020.06.30](#)

[\[Special - 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정기평가결과 \(10\) - 은행, 2020.06.30](#)

[\[Special - 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정기평가결과 \(9\) - 할부리스, 2020.06.29](#)

[\[Special - 코로나19\] 2020년 상반기 정기평가결과 \(3\) - 신용카드, 2020.06.08](#)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여 2020년 금융업권 산업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변경 - '부정적' 신용등급 방향성 증가, 2020.03.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금융업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영향 제한적이나, 장기화 시 신용도에 부정적, 2020.02.10](#)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 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사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사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사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 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